

트럼프의 연준 구성 변화 시도와 미국 통화정책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영교 (yoonyk@kdb.co.kr)

- ◆ 미 연준은 '25.9월 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과 스티븐 마이런 이사 선임 등에도 향후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
- ◆ 연준의 독립성과 최근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정책 관련 마찰이 지속되며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가운데 연준은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파월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한편, 연준 내부에 정부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 지속
 -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17년~'20년) 당시에 여타 선진국보다 높은 금리가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
 - 재집권 후에도 연준을 압박하였으며,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A. Kugler) 후임으로 최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S. Miran)을 임명('25.9.16일)
 - *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재무부 경제정책 선임고문을 지냈으며 2기 집권과 함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최측근 인사로 분류
 - 또한 연준 내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리사 쿡(L. Cook, '38.1.31일 임기 만료 예정) 이사를 부동산 대출 관련 사기 의혹을 근거로 해임 시도*
 - * 쿡 이사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법원은 쿡 이사 해임 통보 무효 판결
- 스티븐 마이런과 리사 쿡 이사가 모두 참석한 '25.9월 FOMC에서 연준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
 - 연준은 '24.9월 기준금리 인하 개시 후 '24.12월까지 총 100bp 인하(5.50%→4.50%) 및 추가 인하를 예고*했으나, 이후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근거로 9개월 간 동결
 - * '24.12월 FOMC에서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25년 중 금리인하 예상 횟수를 3~4회로 제시해 당시 금융시장은 '25년 중 분기당 1회 정도의 속도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
 -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적 성격의 금리인하임을 강조
 -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50bp 인하를 주장해 보다 빠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

□ 연준은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어 대통령의 통화정책 간섭은 불가능에 가까움

- 연준 구성원의 지위는 연준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상당히 복잡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
 - 연준 이사(7인)의 임기는 14년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나 상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장(임기 4년, 이사로서의 임기 내 연임 가능)은 이사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역시 상원 과반의 동의 필요
 - 각 이사의 임기는 매 짝수해 1.31일에 종료되도록 규정돼 있어 7인의 이사가 모두 교체되는데 대통령 연임 임기(8년)보다 긴 14년 소요
 - 이사가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사임한 이사의 임기까지만 재직*할 수 있어 대통령이 단일 임기(4년) 중 2명 이상의 14년 임기를 보장받는 이사 선임은 불가능
- * 스티븐 마이런 이사의 경우 전임 쿠글러 이사의 기존 임기인 '26.1.31일까지만 재임 가능하며 새 임기 14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지명과 의회 재동의 필요
- 이사와 함께 FOMC를 구성하는 지역 연방준비은행(지역 연은) 총재*는 각 지역 연은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지명하고 연준 이사회가 인준하여 결정

* FOMC(총 12명 참석)는 이사 7인과 뉴욕 연은 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뉴욕을 제외한 11개 지역 연은 총재 중 4인이 매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참석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및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명단

직책	성명	현 직위 취임일	현 직위 임기 만료일	비고
의장	제롬 파월(J. Powell)	'18.1.5일	'26.5.23일	이사 임기 만료 '28.1.31일
이사	스티븐 마이런(S. Miran)	'25.9.16일	'26.1.31일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C. Waller)	'20.12.18일	'30.1.31일	
이사	마이클 바(M. Barr)	'22.7.19일	'32.1.31일	
이사	미셸 보우먼(M. Bowman)	'20.1.30일	'34.1.31일	
이사	필립 제퍼슨(P. Jefferson)	'22.5.23일	'36.1.31일	
이사	리사 쿡(L. Cook)	'23.9.8일	'38.1.31일	
뉴욕 ¹⁾	존 윌리엄스(J. Williams)	'18.6.18일	- ²⁾	FOMC 당연직 부의장
보스턴	수잔 콜린스(S. Collins)	'22.7.1일	-	'25년 FOMC 위원
시카고	오스틴 굴스비(A. Goolsbee)	'23.1.9일	-	'25년 FOMC 위원
세인트루이스	알베르토 무살렘(A. Musalem)	'24.4.2일	-	'25년 FOMC 위원
캔사스시티	제프리 슈미트(J. Schmid)	'23.8.21일	-	'25년 FOMC 위원
클리블랜드	베스 헤맥(B. Hammack)	'24.8.21일	-	'26년 FOMC 위원
미니애폴리스	닐 카시카리(N. Kashkari)	'16.1.1일	-	'26년 FOMC 위원
댈러스	로리 로건(L. Logan)	'22.8.22일	-	'26년 FOMC 위원
필라델피아	앤나 풀슨(A. Poulson)	'25.7.1일	-	'26년 FOMC 위원
애틀랜타	라파엘 보스틱(R. Bostic)	'17.6.5일	-	'27년 FOMC 위원
리치몬드	토마스 바킨(T. Barkin)	'18.1.1일	-	'27년 FOMC 위원
샌프란시스코	메리 달리(M. Daly)	'18.10.1일	-	'27년 FOMC 위원

주 1 : 각 지역명은 해당 지역 연은 총재를 의미

2 : 지역 연은 총재의 임기는 1 혹은 6으로 끝나는 해('26년, '31년 등)에 갱신되며 만 65세까지 횟수 관계 없이 연임 가능

자료 : 연방준비제도

□ 향후 추가 금리인하는 물가·고용 등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실제 연준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파월 의장이 이사로서의 남은 임기('28.1.31일)를 채우지 않고 의장 임기 만료('26.5.23일) 후 사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남은 임기를 채울 이사 1인과 의장(해당 시점의 이사 7인 중) 임명 가능
 - * 연준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쳐도 이사로서의 잔여 임기가 있으면 이사로 재직 가능하며 실제 사례(M. Eccles)도 존재
 - FOMC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칙으로 이사 7인 중 2인의 의사만을 반영한 빠른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며 지역 연은 총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외 인사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 파월 의장은 '25.9월 FOMC에서 50bp 인하 의견은 소수였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주요 지표에 따른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
 -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인하는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 표명(9.23일)
 - 굴스비(A.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는 향후 추가 금리인하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의견 개진(9.24일)
- 연준은 정책 참고지표인 고용 및 물가 상황을 참고하며 완만한 속도*로 금리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부와 의견 불일치가 심화·장기화될수록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 '25.9월 점도표에 따르면 '25년은 추가 2회, '26년에는 1회 금리인하 예상